

데이코쿠 극장은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도쿄의 문화적 경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위치는 마루노우치에 있으며, 황거의 외원에 접해 있습니다. 건물에 들어서면 이 건물의 화려하고 인상적인 인테리어에 시선을 빼앗깁니다. 레드카펫이 깔린 로비는 수많은 예술 작품이 진열되어 있어 호화로운 분위기가 흘러넘칩니다. 계단의 층계참에는 이노쿠마 겐이치로(1902~1992)의 빛의 설치미술 작품이 있으며, 벽 한쪽에는 혼고 신(1905~1980)의 4 개 가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노쿠마가 만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입니다. 이 극장의 기술에는 자랑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지하 6층까지 트여 있는 공간을 무대가 고도의 무대 기술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극장 전체의 설계 수준이 굉장히 높아 실제 공연 시 세트의 설치와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데이코쿠 극장에서는 1 년 내내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. 『레미제라블』, 『엘리자벳』, 『맨 오브 라만차』, 『미스 사이공』 등의 뮤지컬 공연 외에 인기 있는 출연자들이 펼치는 스펙터클한 쇼도 상연하고 있습니다. 수용 인원은 약 1,900 명입니다. 또한, 9 층에는 뮤지엄도 있고 기획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